

# 브라질 아마존에서 새 부족 발견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에서 문명 세계와 고립된 채 살아가는 원주민 부족이 추가로 발견됐다.

브라질 국립원주민재단(Funai)은 지난해 아마조나스 주 남서쪽 발레 두 자바리에 사는 고립 원주민들을 관찰하기 위한 탐사 도중 드론을 통해 이들 부족을 발견, 항공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Funai는 이 부족은 지난 해에 오지의 원주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드론 촬영에 포착됐지만 연구조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야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이 지역의 연구를 위해 여러 해 동안 많은 촬영을 해왔지만 정작 원주민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Funai는 16명의 원주민이 정글이나 벌채된 산림 지역을 활보하고, 활과 화살을 지닌 모습이 드론 카메라에 잡혔으며 아직 부족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Funai에서 고립 원주민 연구를 총괄하는 브루누 페레이라는 "아마존 밀림에서 사는 부족들은 도시와 농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의 끈직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며 "그들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원한다면 우리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채굴업자들이 원주민 10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는 등 고립 원주민들의 외부 세계 접촉은 종종 학살이나 전염병 유행과 같은 비극으로 끝났다.

# 상하이, 한국 단체관광 허용

중국에서 한국 단체관광 허용지역이 베이징시, 산둥성, 후베이성, 충칭시, 상하이시 등 5개 지역으로 늘었다.

지난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전날 관내 여행사 3~4곳에 앞으로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상하이시도 한국 단체관광 허용 지역으로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된 중국 지역은 기존 베이징시, 산둥성, 후베이성, 충칭시 등 4개 지역에서 상하이시가 포함된 5곳으로 확대됐다.

다만 이번 단체관광 허용은 상하이시 전체 여행사가 아닌 몇몇 여행사에만 국한된다. 전세기 운항 금지, 크루즈선 정박 제한 조건도 여전히 있다. 또 여행사는 모객을 위해 신문,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할 수 없고, 기존 고객 연락망 등을 활용하는 오프라인 방식 영업만 할 수 있다.

앞서 한국행 단체관광이 허용된 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의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붙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해왔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광분야 제한은 점진적으로 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말 베이징시와 산둥성 지역에 한해 유커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재개한 이후 올해 5월 후베이성과 충칭시, 8월 상하이시로 한국 단체관광 허용 지역을 늘리고 있다.

반면 문화 콘텐츠 분야는 '한한령(限韓令)'이 여전히 중국 사드 보복의 해빙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한한령으로 한국 프로그램의 합법 유통이 단절되다 보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 표절 사례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운우리새끼', '프로듀스101', '응답하라1988', '효리네민박', '윤식당' 등이 최근 중국에서 포맷 표절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 미국 제재 받는 러-터키 공조 강화

미국의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터키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와 터키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동시에 열고 양자 및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 교역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2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합작 프로젝트들이 긍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면서 양국을 연결하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 건설 사업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터키의 첫 원전(아쿠유 원전) 건설 사업을 꼽

았다. 라브로프는 회담에서는 양국 상호 방문객들을 위한 비자 간소화 문제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외무수장간 회담과는 별개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홀무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국방장관들은 시리아 정세 안정화 문제와 양국 군사기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설명했다.

러시아와 터키는 모두 최근 들어 미국과 심각한 외교 갈등을 겪으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러시아는 크림병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문제, 영국에서의 러시아 출신 이종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 등으로, 터키는 미국인 목사 장기 구금 등으로 미국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